

순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연향뜰' 최종 확정

연향동 일원 6만㎡ 부지... 소각시설 지하화 지상 주민친화 공간 3년간 환경영향평가·중앙투자심사후 착공... 2030년 가동 목표

순천시가 2030년 가동 예정인 신규 폐기물 처리 시설(공공 자원화 시설) 입지로 연향뜰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순천시는 지난 2일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로 연향동 814-25번지 일원을 최종 결정·고시했다.

새롭게 지어지는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는 약 6만㎡(1만8150평) 규모이다. 건립을 위한 사업비는 2600억원이 들 것으로 순천시는 내다봤다.

이 시설은 순천시와 구례군에서 나온 생활폐기물을 하루 260t 소각하게 된다. 재활용 선별되는 폐기물은 하루 45t, 열분해 되는 폐기물은 하루 7t 규모이다.

순천시는 소각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관광·문화·체육을 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주민친화 시설을 갖출 방침이다.

13명으로 구성된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15차례 회의를 벌인 끝에 지난달 29일 연향동 일원을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로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지난해 6월 위원회가 해룡면, 도사동 등 5개 후보 지역을 검토한 결과 최적 입지 후보지에 연향동이 선정됐다.

이후 순천시는 연향동 일원에서 대기, 약취, 수질, 토양 등 현장조사와 전라환경영향평가를 벌였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에 대한 협의를 마쳤으며, 공공자원화시설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확인받았다.

입지 결정·고시에 따른 입지 지형도면과 토지 조서는 순천시 청소자원과와 순천시 누리집을 통해 이달 2일부터 오는 5월17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순천시는 앞으로 1년간 환경영향평가를 벌이고,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착공까지 3년여간 행정절차를 밟은 뒤 2030년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을 가동할 계획이다.

순천시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열어 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간극을 메울 생각이다.

소각시설을 지하화한 경기 하남시 유니온파크와 평택시 시설 등을 주민과 함께 둘러볼 계획도 세웠다.

순천에서는 하루 200t의 폐기물을 왕조동 쓰레기 매립장과 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해왔는데, 왕조동 매립장이 포화 상태여서 추가 시설이 필요했다.

민선 7기에 광양시와 인접한 곳에 후보지를 선정했다가 환경 오염을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무산됐었다.

민선 8기에서도 후보지가 확정된 이후 연향 3지구 주민 등으로 구성된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와 일부 환경단체·정치권을 중심으로 환경 문제 등을 들어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장지만 순천시 청소자원과 자원정책팀장은 "환경기술이 고도화되고 최첨단으로 발전한 만큼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고의 기술과 설비를 도입해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로 건설해 지역의 명소로 조성할 것"이라며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입지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받은 만큼 더 입지에 대한 논란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관규 순천시장은 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허위사실을 유포에 대해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순천시가 2030년 가동 예정인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연향뜰(연향동) 일원을 지난 2일 최종 결정·고시했다. 검은색 선 표시 영역이 시설 건립 대상 부지. <순천시 제공>



지난해 4월 여수항에 크루즈선이 입항하자 여수시립국악단 대취타가 환영연주를 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여수항 4~5일 국제크루즈 2척 입항...여행객 1200여명 방문

새봄 맞아 여수 관광 활성화 포문

여수항에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국제크루즈 2척이 잇따라 입항한다. 해외 크루즈 여행객 1200여명이 여수에 방문하며 새봄맞이 여수 관광 활성화의 포문을 연다.

여수시에 따르면 4일 여수를 찾는 국제크루즈는 세계적 크루즈 선사인 미국 '씨번사(Seabourn)'의 '씨번 저전(Seabourn Sojourner)'호 3만급, 길이 198m에 달한다. 이 배는 전세계 크루즈 여행객들이 손꼽는 럭셔리 크루즈로 알려졌다.

승객 정원 540명과 승무원 330명 등 총 870명을 태우고 지난달 24일 대만을 출발해 일본, 부산

을 거쳐 여수항에서 9시간을 머문 뒤 일본으로 떠난다.

또 일본에서 출발해 오는 5일 여수항에 입항하는 프랑스 '포넌트사(Ponant)'의 '르 자크 카르티에(Le Jacques Cartier)'호는 1만급, 길이 132m의 소형 럭셔리 크루즈다.

승객 정원 184명과 승무원 124명 등 308명이 탑승하며, 여수에 11시간을 머물며 일본 후쿠오카로 귀항할 예정이다.

여수시는 짧은 체류 기간 크루즈 승객들이 여수의 매력을 100% 체험할 수 있도록 시립국악단 '취타대'의 환영 공연을 비롯해 주요 관광지 무료 셔틀버스 운행, 문화관광해설사 및 통역 지원 인력 배치 등 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또 국제 크루즈를 유치한 여행사는 전세버스 임차비 1회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기항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펼친다.

올해 여수항에는 10월 포넌트사의 크루즈가 한번 더 찾아 총 3척의 국제크루즈 입항이 예정됐다. 여수시는 하반기에 크루즈 1척을 추가로 유치하기 위해 선사 측과의 협의 중이다.

신영자 여수시 관광과장은 "국제 크루즈 입항은 관광 성수기를 맞은 여수의 관광활성화에 포문을 열게 될 것이며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와 여수시의 국제 관광도시 이미지를 높이는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광양시, 재혼부부도 결혼축하금 지급

49세 이하... 200만원씩 지원

광양시가 청년 부부에게 지원하는 결혼 축하금이 재혼한 부부에게도 지급된다.

광양시는 청년 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층의 유입과 지역 정착 도모를 위해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2022년 7월4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49세 이하 부부(혼인신고일 기준)로 올해부터는 재혼 부부도 해당된다.

결혼축하금은 생애 1회 지원으로 부부 중 누구라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주요건은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지급 기한 내 타 시도 전출자 제

외)하며 부부 중 1명(신청자) 이상은 광양시에 주소지를 둔 청년 부부에 해당하면 된다.

시는 신청 기한이 짧아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부들을 위해 기존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1년 이내였던 신청 기한을 6개월 경과 후 1년 6개월 이내로 확대했다.

기존 신청자를 아내로 한정해 남편이 신청 시 위 입장을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위임장 없이 부부 중 한 명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항 광양시 출생보건과장은 "시는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청년 유입·정착 지원을 강화해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더욱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여수 세계섬박람회 프로그램 아이디어 공모

재단법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섬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프로그램(콘텐츠) 아이디어를 4월 한 달간 공모한다.

공모전 주제는 ▲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융합하는 새로운 아이디어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상징물 구성 및 연관 콘텐츠 ▲ 인류, 섬, 바다를 아우르는 담은 콘텐츠 ▲ 여수 365개 섬과 연계할 수 있는 콘텐츠 ▲ 그 밖에 섬박람회를 부각할 수 있는 핵심 콘텐츠 등 총 5가지이다.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접수가 가능하며, 이달 30일까지 전자우편(yshs0505@korea.kr)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추후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최우수(1명·200만원), 우수(2명·100만원), 장려(3명·50만원)로 선정해 오는 5월 중 재단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전시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광양시 자원순환단지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

광양시가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설치사업 최적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설치사업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주민대표,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입지선정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고, 조사용역 전문기관 선정을 광양시에 위임했다. 광양시는 지난 3월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제안

서 평가 등을 거쳐 타당성 조사용역 전문기관을 선정했다.

광양시는 지난해 입지 후보지를 공모했으나 응모지역이 없었다. 입지선정위원회와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은 협의를 벌여 광양시 전역을 대상으로 입지적 조건, 사회적 여건, 기술적 조건 등을 평가하는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계획을 세웠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앞으로 조사 결과를 일간지, 광양시보, 광양시 누리집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입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구례군민의 상 수상자 화염사 주지 덕문스님

올해 구례군민의상 수상자에 화염사 주지 덕문스님(사진)이 선정됐다.

구례군은 지난 2일 구례군민의상 심사위원회(위원장 김순호 구례군수) 회의를 열고 심사위원 15명 전원 찬성으로 '2024년 구례군민의상' 수상자에 조계종19교구 본사 화염사 주지 덕문스님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덕문스님은 지난 2017년부터 조계종19교구를 맡아 지역사회 화합과 발전의 기틀을 다졌다는 평을 받았다.

30년간 풀지 못했던 지리산 천은사 입장로 정수를 2019년 4월 폐지하는 데 힘을 보탰다.

지역 농가와 수재민들을 위한 성금 2억원 모금에도 앞장섰다.

또 화염사 흥매화 천연기념물 지정에 이끌고, 사진대회·요가대회·화엄문화제·여름밤 영화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열어왔다.

화염사를 야간 개방해 관광객과 불자들의 화합 시간도 마련했다. 덕문스님은 지난해부터 BBS 불교방송 이사장을 맡고 있다.

구례군은 오는 20일 덕문스님 등 19명에게 구례군민의상을 시상할 예정이다. 구례군민의상은 지난 1988년 제정된 이후 35년간 지역사회 개발, 교육, 문화, 체육, 복지 분야 등에서 공을 세운 이에게 상을 주고 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4~5월 보성서 전국규모 스포츠 대회 잇따라 열린다

장사씨름·마라톤·요트대회 개최

보성에서 4~5월 전국 규모 체육대회들이 열린다.

보성군은 이달 13일 전국장사씨름대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보성녹차마라톤대회, 한국유퀴티미스트 전국 요트대회 등이 보성에서 펼쳐진다고 3일 밝혔다.

2회 전국장사씨름대회는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간 벌교스포츠펀터에서 열린다.

이 대회는 대한씨름협회가 주최하고 보성군체육회, 보성군씨름협회가 주관한다.

1200명의 선수단이 참여할 이번 대회는 개인전은 초등부·중등부 등 6개 종목, 단체전은 5개 종목으로 나뉜다.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을 달리는 '19회 보성 녹차마라톤대회'는 5월4일 보성체육공원 공설운동장에서 열린다. 이 대회는 보성군 체육회가 주최하고 보성군마라톤연합회, 전국마라톤협회가 주관한다.

풀, 하프, 10km, 5km 순으로 대회가 진행된다. 참가 희망자는 이달 15일까지 보성녹차마라톤대회 홈페이지(boseong.run1080.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5km 종목에 참가자들은 기념품으로 운동화를



지난해 5월 열린 보성녹차마라톤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힘차게 발을 내디디고 있다. <보성군 제공>

받을 수 있으며 풀·하프·10km 참가자는 티셔츠 또는 선글라스를 받는다.

이날 대회 참가자는 대회 당일 보성군이 운영하는 울포해수욕장센터 방문 때 배번호를 제시하면 3000원이 할인된 1인 5000원에 해수 노천욕을 이용할 수 있다.

청정 득량만에서는 5월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2024 한국유퀴티미스트 전국 요트대회'가 펼쳐진다.

울포솔밭해수욕장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보성군 체육회가 주최하고 한국유퀴티미스트클래스 협회가 주관한다.

대한요트협회 소속 100여 명의 임원·선수들이 참가해 2개(유퀴티미스트, 토포즈) 종목 12개 부(초등·중등·일반)로 진행된다.

울포솔밭해수욕장에서는 방문객들이 무료 요트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